



[지속가능] 핀란드, 분뇨 활용 바이오가스로 집유차량 운행

- Valio社,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속화 도모



핀란드 유가공조합 Valio가 오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젖소의 분뇨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집유차량 운행에 나섰다.

해당 조합은 중화물차량(HGV)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재생 천연가스를 생산해 집유차량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이미 이를 목장에서 필요한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가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로 분뇨를 운반해 혼합물을 분해시킨 후 30~40일 간의 정제를 거쳐 연간 약 1,900 메가와트시(Mwh)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료 생산을 위한 시설을 확대해 집유차량 뿐만 아니라 목장 인근의 주유소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원유 집유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디젤로 운송했을 때에 비해 85%까지 줄일 수 있으며, 농가에서 분뇨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3월 11일자 >

[업계동향] 美 코스트코, 공급망 혼란으로 치즈 품귀 현상

- 식료품 수요 증가로 생활용품 공급 차질



미국의 대형 마트체인점인 코스트코에서 치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치즈 등 식료품 수요 증가로 수입 물량이 폭주하며 수입품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미 서부지역 등 주요 항구로 물량이 몰리며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하역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급망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코스트코에서는 치즈뿐만 아니라 해산물, 올리브오일, 가구, 스포츠 용품 등 식료품 및 생활용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같은 현상은 코스트코 외에도 주요 유통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들어 입고 지연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해 차선책으로 항공 화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해상 운송 비용의 8~10배에 달해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공급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소매 업체는 가격 인상을 통해 운송비 상승세를 상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출처 : edition.cnn.com, 3월 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